

## 치 사

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사회통합>을 고민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원력에 깊은 격려와 더불어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며 전통문화의 대사관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진관사에서 <한국교수불자대회>가 열리기에, 그 의미 또한 더욱 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효스님의 ‘화쟁’이 보여주듯이 한국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우리사회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치유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 동과 서의 지역 갈등, 소득 격차에서 오는 계층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수불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불교의 역할을 모색한다고 하니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교수불자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불교와 사회통합>은 당연히 불교의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불교를 실행하면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학문을 탐마해온 교수불자 여러분들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의 병폐와 오류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불교적 사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불교적 소임으로 삼아 정진하는 모습은 수많은 불자들의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고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것 역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갈등을 예방하고, 다종교 다문화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학력,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사회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양극을 여의고 중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함경에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두 개인 양두사(兩頭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이를 보면 번번이 오른쪽이 선수를 쳐서 먹어버리므로 왼쪽은 항상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른쪽 입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먹지 않은 것을 왼쪽 입이 집어 삼켜 그만 양두사는 죽게 됩니다. 한 몸 위에서 두 입이 대립하듯 한 사회, 한 나라, 한 세계에서 서로가 대립만 일삼으면, 자칫 근본인 하나가 파멸을 초

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다문화 다종교’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생기고 있는 이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오늘의 노력은 상생의 문화를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정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정무구한 북한산 진관사 바람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시면서, 오늘의 한국교수불자대회를 향상일로(向上一路)의 법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9년 8월 17일